

[부활절 전도집회 - 셋째날] 보내시는 아버지

[본문]: 요한복음 5장 24~27절 / 유진소 목사 / 199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초보적인 물음처럼 들리지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후 대학에서 한 후배가 이 질문에 ‘예수님을 형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갑자기 눈 앞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죽은 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서 8장 14,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선교와 치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하며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 열정과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적치유사역을 하며 사람들의 상처의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스탐슨이라는 YM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한 사역자는 권위의 인물과 상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대부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상’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의 울타리요,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져있습니다.

깨어진 아버지 상의 회복

아버지상이 깨져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울타리와 같아서 권위가 없는 삶은 울타리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감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잠시 후에는 버림받을까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무시해도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거절감에 시달립니다. 모두 다 권위의 부재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상이 깨져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버지는 존재의 근거요, 그 삶의 바탕과 같아서 아버지 상이 무너지면 인생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권위없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삶의 너무나 중요한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루머에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상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 속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장시의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 두 살 때 온가족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이 가셨던 일에 대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만 나올 뿐 아버지와는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마리아가 이 일을 마음에 새겼다고 나옵니다.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묘사합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있으면 절대로 어머니의 자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죄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을 체험하셨고 인간의 아버지의 결핍과 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잘못된 아버지상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아담의 후예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자녀에게 깨어진 아버지상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담 계열의 아버지됨의 한복판에 ‘아버지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 썩뿌리처럼 남아 삶에 열등감과 분노와 아픔을 불러 일으켰던 잘못된 아버지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최초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왜 기쁨과 평강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그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깨어진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한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상을 바꾸어 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버지상을 집어넣어야 거기서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표현하시며 ‘사랑하사’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친구사이의 친밀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모델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모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삶의 모든 것은 결정할 때마다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삼십팔년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유대인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확신도 없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휩쓸려 다니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는 길은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확신을 가지고 가는 좁은 문의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은 능력입니다. 확신있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매력있는 사람입니다. 갈등하며 주저하는 사람은 초라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갖은 예수님에게 잇는 모습은 ‘권위’입니다. 권위는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큰 문제는 권위가 없다는 것이요, 권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에 다시 보내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심각한 사실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던져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쫓겨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모두 보냄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두가지 선택

여러분, 삶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뚫고 나가 아름다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교만해짐과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성공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축복과 공경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공경을 받는 것처럼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환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요, 예수님의 당당함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선택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가운데 있는 욥신의 아버지의 깨어진 아버지 상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임으로서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권위를 주고 확신을 주길 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상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며 하늘의 평강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두 가지 선택입니다.